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농업현황과 정책 *

원 지 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남아프리카공화국 일반 연왕

1.1. 개요

남아프리카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 이하 남아공)는 위도 22도~35도, 경도 17도로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에 위치한 국가이다. 국가 면적은 남한 면적의 약 12배인 1,219만 90km²이며, 지리적 위치상으로는 나미비아, 보츠와나, 짐바브웨 등의 국가와 이웃하고 있다. 지형적으로는 서쪽, 남쪽, 동쪽이 모두 바다와 접하고 있어 약 3,000km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으며, 표면적은 주로 내륙의 고원과 해안과 고원 사이에 위치한 평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영어, 아프리칸스어, зулу어 등 총 11개의 공용어를 사용하며 기독교, 카톨릭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나라이다. 보다 자세한 국가 정보 및 지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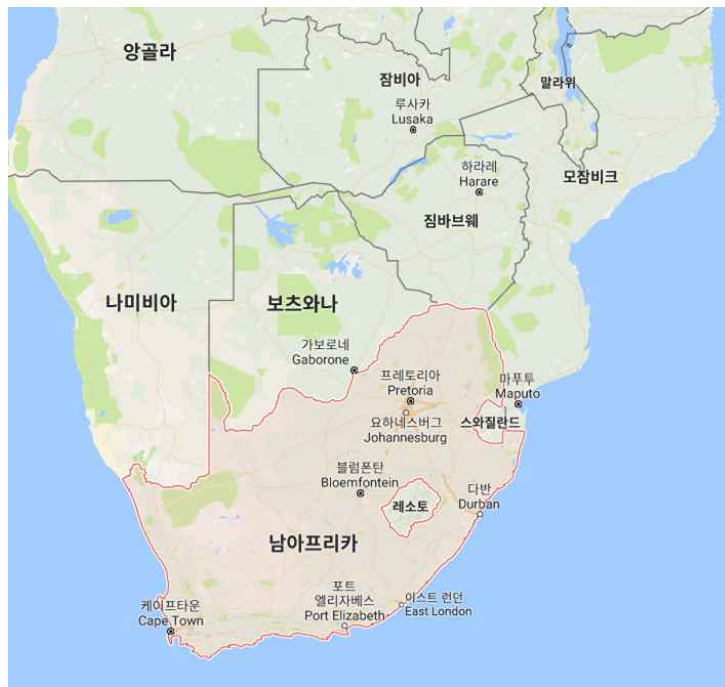
* (jewon@krei.re.kr).

표 1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정보

국명	남아프리카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
위치	아프리카 최남단
면적	1,219,090km ² (한반도의 5.5배, 남한의 12배)
기후	내륙 지방(온대성), 서부 해안(지중해성), 동부 해안(아열대성)
수도	Pretoria(행정수도), Cape Town(입법수도), Bloemfontein(사법수도)
인구	5,565만명(2016년)
주요 도시	요하네스버그(494만 명), 케이프타운(400만 명), 더반(344만 명), 프레토리아(292만 명)
인종 구성	흑인: 42.30백만(79.8%), 백인: 4.60백만(8.7%), 혼혈: 4.76백만(9.0%), 인도/아시아계: 1.33백만(2.5%)
언어	영어, 아프리칸스어, зулу어, 코사어 등을 비롯한 11개 공식 언어 사용 비즈니스어로는 영어가 널리 사용됨
종교	기독교(79.8%), 카톨릭교(7.1%), 이슬람교(1.5%), 힌두교(1.2%), 토착신앙(0.3%), 유대교(0.2%), 기타(17.1%)
건국(독립)일	1910년 5월 31일 (영국)
정부 형태	대통령 중심제(내각제적 요소 가미: 의회에서 대통령 선출 등)
국가 원수	Jacob Zuma(대통령, 취임일: 2009년 5월, 재취임일: 2014년 5월)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그림 1 남아프리카공화국 지도



자료: 구글 지도(<https://www.google.com/maps/>).

1.2. 정치 및 사회 동향

남아공은 영국의 항해 보급기지이자 광물자원 수탈지로 오랜 식민지 시절을 지낸 후 1910년 영연방 국가로 독립하였다. 이후 1948년 백인들만의 총선에서 국민당이 승리하게 되면서 인종차별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 시절이 시작되었고, 이에 대항한 아프리카민족회의(African National Congress, ANC)와 그 아래 게릴라 조직인 ‘민족의 창’이 점차 득세함에 따라 개혁의 물결이 시작되었다. 1994년 4월 최초로 실시된 민주선거에서 ANC가 압승을 거두어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남아공의 집권체제는 여당 ANC의 확고한 1당 집권체제를 유지해오고 있다.

현재 연임중인 주마 대통령은 여러 차례의 국정연설을 통해 일자리 마련 및 근무환경 개선, 빈곤 해소, 경제 불평등 해소, 인프라 확충 등의 이슈에 대해 개선 의지를 표명해왔다. 특히 2012년 9월 최종적으로 발표된 국가개발계획 2030(National Development Plan 2030)에서는 빈곤 타파와 불평등 해소라는 큰 목표 아래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사회간접자본 확충, 인적자원 개발, 법적제도 정비, 교육의 질적 제고, 공공보건 강화, 에너지 및 수도공급 확대, 광대역 인터넷 공급, 치안확보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흑인 민주정부 수립 이후 약 20년간 거시경제 지표는 양호한 수준으로 개선되었지만, 기득권층인 백인과 일부 흑인에 비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난한 생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심각한 빈부격차가 정치 불안요소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정치와 행정부문에 만연한 부정부패로 국민들의 정치 불신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는 점도 위험요소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실제로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갈망은 2014년 총선 결과에 여실히 반영되었다. 집권여당인 ANC의 득표율은 직전 총선인 2009년에 비해 약 3.7% 하락하였으나, 주마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반대 입장을 취하는 급진 좌파정당인 EFF(Economic Freedom Fighters)는 6%의 득표율로 신생 정당 중 최대 득표율을 기록하고 제2야당의 자리를 차지했다. 이러한 정치상황의 변화는 향후 여당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높은 실업률과 불법 이민자 유입 증가, 부정부패의 만연 등 남아공의 사회 치안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외국인 불법노동자에 대한 반감으로 인한 반외국인 범죄의 위협까지 겹치면서 해외투자유치 전망은 사실상 낙관하기 어렵다. 그 외에도 전 국민의 10%에 이르는 HIV/AIDS 보균자 수와 국제사회 전반적으로 침체된 경제상황 등으로 남아공의 사회치안은 극도로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공은 아프리카 권역 내 혹은 국제사회 문제 논의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례로 남아공은 G20의 회원국이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유엔, 세계무역기구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아프리카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1.3. 경제 현황

남아공은 아프리카 최대시장으로서, 아프리카 국가 중 나이지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GDP 규모를 보인다.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세(-1.5%)를 제외하고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왔으나, 최근 몇 년간 남아공 광산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 및 파업, 란드화 가치하락, 원자재 가격 하락, GDP 대비 정부부채 증가, 소비 감소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2011년 3.6%에 달했던 경제성장률은 2016년 추정치 기준 0.5%대로 하락하였으며, 전체 GDP 및 1인당 GDP,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수출 실적, 외국인투자금액 등의 대내외 경제

표 2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주요 경제지표

지표		단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대내경제	경제성장률	%	3.6	2.5	1.9	1.5	1.3	0.5
	1인당 명목 GDP	US\$	7,831	7,314	6,618	6,633	5,691	4,995
	명목 GDP	백만 US\$	403,976	382,656	351,027	348,751	312,817	274,554
	정부부채/GDP	백만 US\$	28.9	37	39.1	41.5	50.1	50.9
	소비자 물가상승률	%	6.4	5.7	5.3	5.8	5.2	6.7
	민간소비증가율	%	4.9	3.5	2.6	2.8	1.7	0.7
	실업률	%	24.8	24.9	24.7	25.0	25.4	26.8
	수출실적	백만 US\$	109,474	100,574	96,700	92,545	81,641	-
	수입실적	백만 US\$	-102,450	-104,420	-103,786	-98,873	85,721	-
	대외의존도	%	52.25	53.18	56.38	58.27	30.9	-
	무역수지	백만 US\$	7,023	-3,845	-7,086	-6,328	-4,080	-
	외국인 투자금액 (당해분)	백만 US\$	4,139	4,626	8,118	9,145	1,800	-
	총외채	백만 US\$	115,184	137,501	137,095	139,159	131,735	129,952
	외환보유고	백만 US\$	48,867	50,699	49,690	51,615	45,910	44,637
	이자율	%	2.2	3.1	2.4	5.75	7.0	7.2
	환율	US\$	8.08	8.48	10.49	11.14	15.57	17.41

주: * EIU 추정치.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지표들도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침체 상황은 남아공의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과 유럽의 경제성장 둔화 및 금융위기 고조로 인한 대외불확실성의 증가와 국내 전력수급 문제로 인한 생산성 저하, 경상수지 적자, 해외투자 유입 감소 등으로 인해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경제지표를 표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1.4. 주요 산업 연망

2015년 자국 통계청 발표한 남아공 전체 GDP 대비 각 산업부문별 비중은 1차 산업이 10%, 2차 산업이 21%, 3차 산업이 69%를 차지하였다. 이 수치가 입증하듯, 남아공의 경제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과 달리 3차 산업 중심의 복합적이고 성숙한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다.

남아공의 주요 산업으로는 광산업, 철강, 정보통신(IT) 산업 등이 있다. 자원부국인 남아공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광산업을 국가 주요산업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실제로 남아공은 전 세계 크롬 매장량의 36.7%, 망간 24.1%, 형석 17.8%, 금 1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약 55종 이상의 광물들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¹⁾ 경제성장과 산업다각화로 전체 남아공 경제에서 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남아공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10개 산업 중 가장 높은 GDP 성장률인 3%를 기록하고, 2016년 2분기 기준 11.8%의 GDP 성장률을 보이는 등 광산업은 아직까지 국가기반산업으로서 그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다. 다만 전력부족 및 채굴비용 증가, 노조파업 및 인건비 상승, 국제 광물가격 하락 등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향후 광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아공의 철강산업은 풍부한 철광석 매장량(1,500Mt, 세계 11위)과 남아공 정부의 사회인프라 확장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꾸준한 철강 수요에 힘입어 지속적인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남아공은 2014년 기준 세계 22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1위 철강 생산 국가인 동시에 아프리카 전체 철강 생산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아공의 5대 수출품목에 철강이 포함되는 등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철강산업 또한 최근의 노조파업과 고질적인 전력부족, 원자재 가격 급락 및 중국과의 경쟁구도로 인해 위기에 직면해 있다.

남아공의 정보통신산업은 2006년 남아공 정부가 전기통신법률(Electronic Communication

1) 한국수출입은행(2010). “남아공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Act)을 통과시킨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통합적인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싼 인터넷 이용요금과 낙후된 기간망, 제한된 서비스지역, 국영기업인 텔콤(Telkom SA)의 오랜 독점체제 유지로 인한 경쟁력 하락 등 아직까지 다양한 제약요소들이 존재하지만, 인터넷 및 무선통신 보급률 향상과 정부의 탈규제화 등의 요인에 힘입어 IT산업은 남아공의 새로운 주요산업이자 유망산업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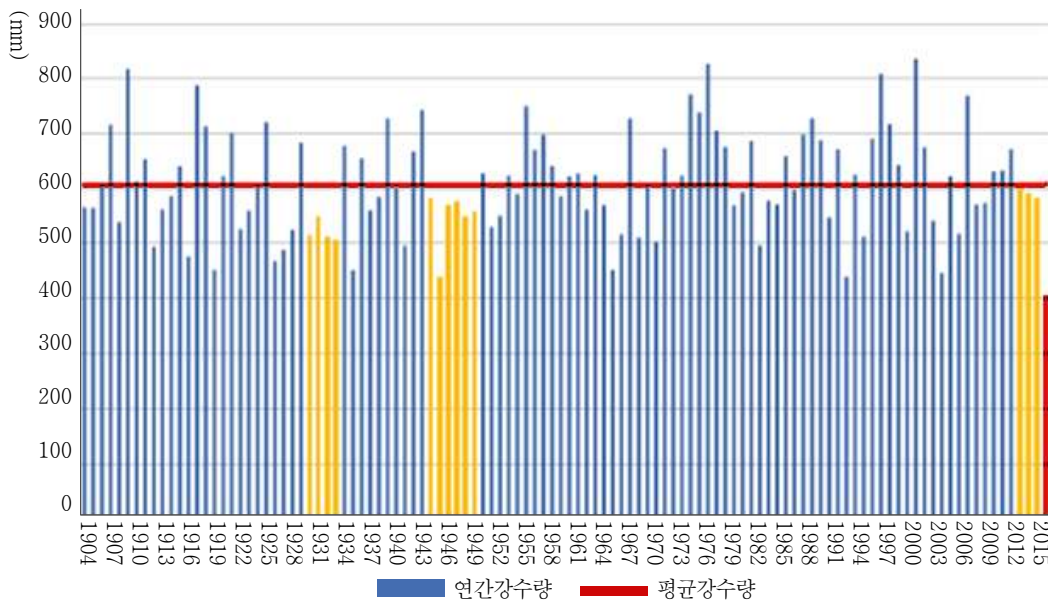
최근 남아공의 농업은 2015년 -8.4%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며, 국가 전체 GDP 성장률 하락세의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될 만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하지만 타 산업과의 높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주요 외화 획득원이라는 점에서 농업은 남아공 경제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농업연황

2.1. 농업 일반개황 및 환경

남아공은 약 120만 km²의 전체 국토 중 12%가 농작가능지역에 해당하지만, 그 중에서도 22%(전체 면적대비 약 3%)만이 높은 잠재력을 지닌 가경지역(high-potential

그림 2 남아공 연간 총 강수량 (1904-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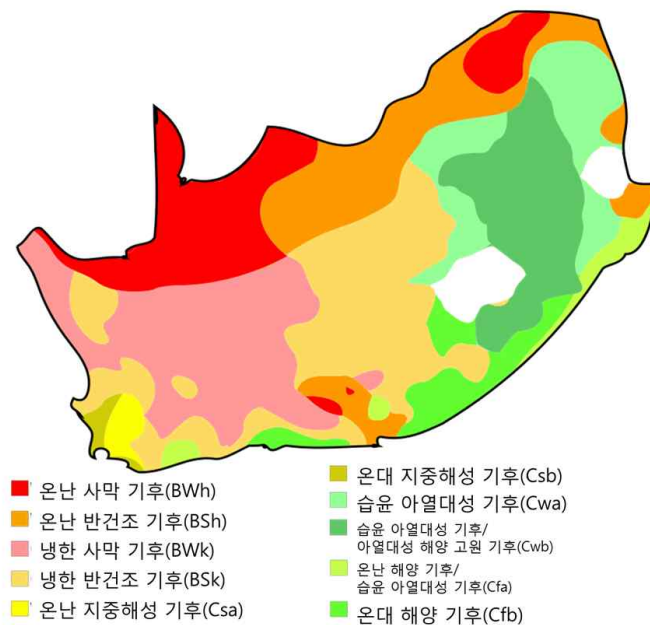


자료: Elsa de Jagar(2016).

arable land)에 해당한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농업용수에 대한 접근성 부족에 기인하는데, 남아공의 전체 수자원 중 약 50%가 농업용수로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약 130만 ha의 농경지만이 관개가능 면적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천수답에 의존하는 농업형태 또한 불규칙한 강수 패턴 및 물 부족 현상으로 인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실제로 2015년 남아공의 강수량은 1904년부터 2015년까지 역대 강수량 중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물 부족 현상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점차 이러한 불규칙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남아공의 농업은 기후 불확실성과 낮은 생산성이라는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또한 남아공의 토양은 합성비료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점차 오염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008/09년 남아공 연감(South Africa Yearbook 2008/09)에 따르면 500만 ha의 경작지에서 이미 심각한 산성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토양오염은 강과 지하수의 오염을 초래하고 이산화질소 등의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온실효과를 초래한다. 지금처럼 남아공의 농가들이 농산물 재배를 위해 비료를 남용한다면 농지의 염해농도 및 산성도가 점차 높아져 농산물 내 방사능 물질 및 독성 금속과 관련한 문제가

그림 3 코펜 기후 구분에 따른 기후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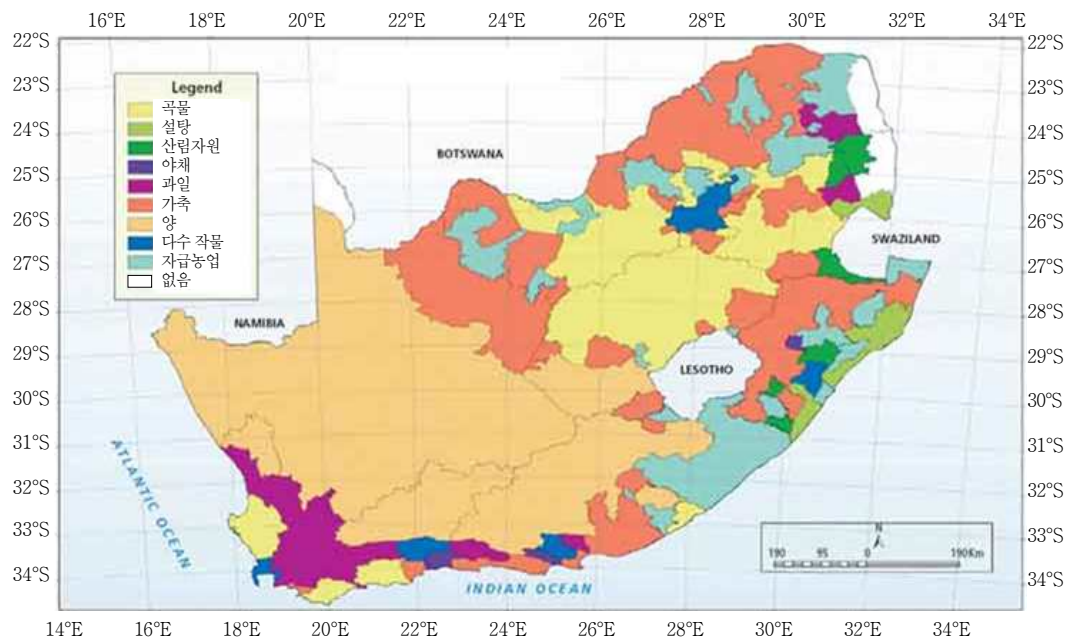


자료: Köppen climate classification(<http://koeppen-geiger.vu-wien.ac.at/>)의 자료를 위키피디아에서 재인용 (https://en.wikipedia.org/wiki/Climate_of_South_Africa).

대두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위와 같은 토양오염 및 농업용수에 대한 접근성 부족 문제로 인해 남아공의 농가 수는 1990년대 초반에 비해 2/3수준으로 감소하였다.²⁾

그러나 남아공은 3,000km가 넘는 해안선을 따라 다양한 기후 및 식생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아래 다양한 농작물이 생산되고 있다. 남아공의 기후 분포는 지중해성 기후부터 아열대 기후, 반사막 기후까지 다양하며, 코펜 기후 구분(Köppen climate classification)에 따른 지역별 자세한 기후환경은 <그림 3>의 지도와 같다. 또 각 지역의 토양 및 기후환경에 따라 주로 생산되는 작물 분포도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지역별 작물 분포도



자료: FAO Corporate Document Repository (<http://www.fao.org/docrep/008/y5998e/y5998e06.htm>).

최근 들어 지속가능한 개발이 전 세계적인 주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남아공의 농업 또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과거 농업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무분별하게 진행되었던 합성비료, 살충제 및 제초제 사용, 유전자조작 등의 집약적 농업방식은 농업 종사자들을 독성 물질에 노출시키고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였으며, 토양 비옥도를 저하시켰다. 이에 남아공은 장기적인 생산력 제고를 위한 토양 및 수자원 활용방식 변화,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 제고, 풍부한 생물다양성 및 건강한 농업 생태시스템

2) Goldblatt, Amy(2010). "Agriculture: Facts & Trends, South Africa".

마련,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 및 유인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2.2. 주요 작물 및 특징

남아공은 주요 작물에 대한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임과 동시에 와인, 감귤, 옥수수, 포도 등 다양한 작물의 수출국이기도 하다. 품목별 농업 총생산 및 주요 수출품, 식량수급표(Food Balance Sheet)는 <그림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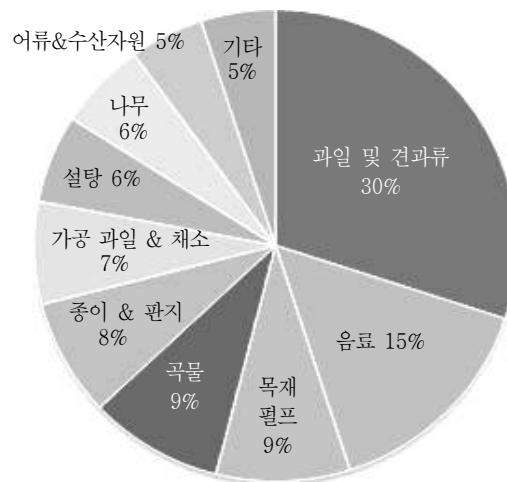
그림 5 품목별 농업 총생산(Gross Value, 2014/15)

단위: 1,000 란드

농작물	옥수수	사탕수수	밀	대두	건초	기타	
	24,560,485	7,704,114	5,366,216	5,063,104	4,918,382	5,013,007	
원예작물	낙엽성 과일	감귤	야채	감자	포도	기타	
	16,171,308	12,634,005	11,454,492	6,609,380	4,680,338	8,357,473	
축산물	가금류	목축 및 가축 사육		우유	계란	양/염소	기타
	37,225,273	26,792,372		14,994,234	9,418,719	6,626,134	14,765,313

자료: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2016).

그림 6 농림수산분야 주요 수출품목(2014)



자료: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http://www.daff.gov.za>).

주요 작물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곡물산업은 남아공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산

표 3 주요작물 식량수급표(2011)

단위: 1,000 미터톤

구분	국내 공급				국내 유통					
	생산량	수입량	재고변화	수출량	식용	가공용	사료용	종자용	폐기물	기타
곡식 (맥주 제외)	12,918	3,240	2,070	2,963	9,379	560	4,516	89	471	250
- 밀	2,005	1,909	-500	143	3,141	0	39	33	58	0
- 옥수수	10,360	91	2,600	2,765	5,210	34	4,357	44	391	250
뿌리작물	2,251	120	0	69	1,768	0	225	78	111	121
설탕작물	16,800	0	0	2	0	15,960	0	0	840	0
설탕&감미료	2,041	234	-109	313	1,815	39	0	0	0	0
채소	2,636	143	0	123	2,355	0	41	0	260	0
과일 (와인 제외)	6,133	386	65	2,978	2,031	1,380	0	0	200	2
주류	4,234	104	0	621	3,571	192	0	0	0	88
- 와인	966	2	0	374	402	192	0	0	0	0
육류	2,738	378	2	29	3,082	0	2	0	0	8
- 쇠고기	829	13	0	11	823	0	0	0	0	0
- 양/염소고기	166	7	0	0	173	0	0	0	0	0
- 돼지고기	203	33	0	4	233	0	0	0	0	0
- 가금류	1,492	324	1	10	1,808	0	0	0	0	0
계란	511	0	0	5	380	0	0	76	51	0
우유 (버터 제외)	3,256	209	3	114	2,840	0	500	0	15	0
어류	627	164	5	380	298	0	116	0	0	0

자료: FAOSTAT(<http://faostat3.fao.org/>).

업 중 하나로, 전체 농업 총생산의 약 25%를 차지한다. 그 중 가장 많이 재배되는 작물로는 옥수수, 밀, 사탕수수, 해바라기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옥수수는 남아프리카 지역의 주된 탄수화물 섭취원이며, 남아공은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의 주요 옥수수 생산국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전국적으로 9,000여개가 넘는 농가가 옥수수를 생산하고 있으며, 주요 생산지역은 노스웨스트(North West)지역, 프리스테이트(Free State)주, 움푸말랑가 하이펠트 고원지역(Mpumalanga Highveld), 콰줄루나탈 중부지역(KwaZulu-Natal Midlands) 등이 있다. 옥수수의 국내 소비량은 약 800만 톤에 달하며, 초과량은 수출된다.

그 외 곡물 중 밀은 겨울철 강우지역(winter rainfall area)에 해당하는 웨스턴케이프

(Western Cape) 주와 프리스테이트 주의 동쪽지방에서 주로 재배되며, 보리는 주로 웨스턴케이프의 남쪽 해안 평야지대에서 생산된다. 해바라기 씨는 주로 프리스테이트 주와 노스웨스트 지역, 움푸말랑가, 림포포지역 등지에서 생산되는데, 남아공은 전세계에서 10번째로 해바라기 씨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에 해당한다.

남아공은 세계 13위의 설탕 생산국이다. 사탕수수는 폰돌란드(Pondoland) 북부지방부터 움푸말랑가 저지대까지 이어지는 해안가에서 주로 생산되며, 시기별로 약 250만 톤의 설탕이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에서 약 50%가 국내시장에서 소비되며 나머지는 수출된다.

과일은 남아공의 농림수산분야 주요 수출품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작물에 해당한다. 낙엽성 과일은 주로 웨스턴케이프 지역과 이스턴케이프(Eastern Cape)의 랑클루프(Langkloof)지역에서 생산된다. 감귤은 주로 림포포, 움푸말랑가, 이스턴케이프 등지의 관개용지에서 생산되며, 전체 원예작물 총생산의 약 21%를 차지하는 영향력 있는 작물이다. 그 외에도 파인애플, 아보카도, 망고, 바나나, 파파야 등의 다양한 과일이 생산된다.

남아공은 세계 9위의 와인생산국가로 11만 ha이상의 농지에서 300만 그루의 포도 나무를 재배하고 있다. 전체 생산량중 약 84%가 생산조합에 의해서 생산되며, 4,000 개의 와인생산업체에서 6만 명 이상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다.

남아공의 채소농가 총소득 중 약 40%는 감자가 차지하며, 그 뒤를 토마토, 양파 등의 작물이 잇는다. 감자는 프리스테이트와 움푸말랑가 고지대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산되며 전체 생산량의 약 50%가 현지시장에서 소비되고, 약 18%는 가공처리된다. 토마토는 주로 림포포, 움푸말랑가, 콰줄루나탈 등지에서 생산되며, 양파는 움푸말랑가, 웨스턴케이프, 프리스테이트 남부지역에서 주로 생산된다.

축산업은 남아공 농업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전국적으로 소 1,380만 두, 양 2,880만 두가 사육되고 있다. 낙농업은 프리스테이트 동북부, 노스웨스트 등지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주요 사육 우종은 홀스타인(Holstein), 저지(Jersey), 전지(Guernsey), 에이샤이어(Ayshire)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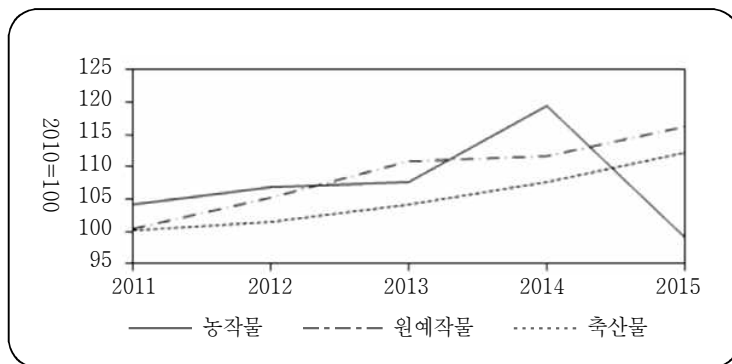
남아공은 총 육우 수요의 85%를 자급하고 나머지 15%를 나미비아, 보츠와나, 호주 등의 국가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소 목축농장은 주로 이스턴케이프, 프리스테이트, 콰줄루나탈 등지에 위치하며, 주요 우종은 아프리카너(Afrikaner), 앵구니(Nauni), 본스마라(Bonsmara), 트라켄스버거(Drakensberger) 등이 있다. 그 외 양·염소 목축업은

이스턴케이프, 프리스테이트, 움푸말랑가 지역에서, 가금류 및 돼지 목축업은 가우 탕(Gauteng), 더반(Durban), 피터마리츠버그(Pietermaritzburg), 케이프타운(Cape Town)과 같은 도시 근교에 주로 위치한다.

2.3. 최근 농업 동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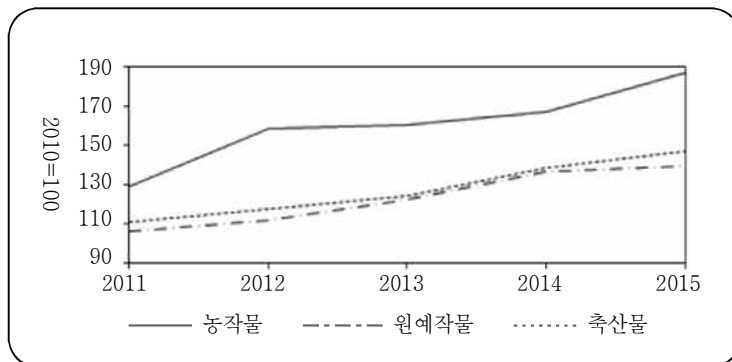
2015년 전체 대비 남아공 농업의 GDP 기여도는 약 2%(총 667억 란드, 약 48억 달러)를 기록하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하지만 남아공 전체 농산품의 약 70%가 중간재로 활용되고, 화학비료 사용, 농기계 활용 등 농업분야와 타 산업 간에 높은 연계가 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아공의 농업은 현재 국가 전반적으로 높은 실업률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이자, 유희노동력을 활용

그림 7 남아공 농업 생산지수 추이(2011-2015, 1-12월)



자료: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2015).

그림 8 남아공 농산물 평균 소비자 가격(2011-2015, 1-12월)



자료: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2015).

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산업이라는 점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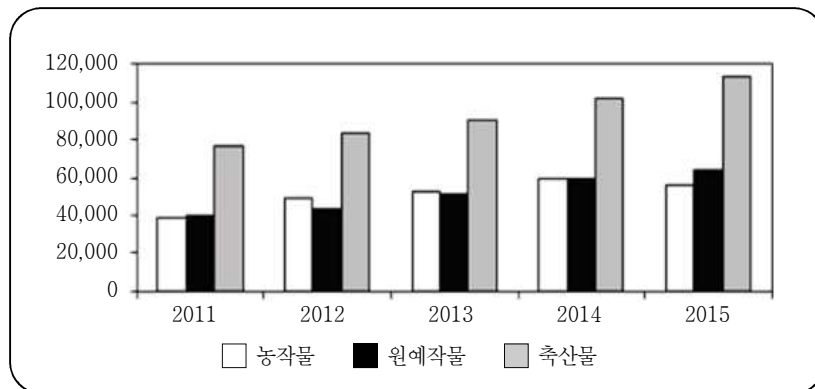
2015년 농업 생산량은 전년대비 약 1% 하락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옥수수, 사탕수수, 유지종자(Oilseed), 밀, 캐놀라 등으로 대표되는 여름 및 겨울곡물 생산량의 전반적인 감소로 농작물 생산량이 17%의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원예작물과 축산물 생산은 각 4.2%로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그림 7 참조>.

2015년 농산물 평균 소비자가격은 6%의 상승세를 보였다. 견초 13.2%, 여름작물 12.5%, 담배 10.7%, 사탕수수 10.1%, 겨울 작물 6.7%, 면화 5.3% 등 농작물의 가격 상승세가 주로 두드러졌으며, 과일 가격의 상승세(8.4%)에 힘입어 원예작물 또한 2.1%의 상승세를 보였다. 축산물 가격은 목축업 생산물(12.9%), 가금류(7.7%), 도축 재고(6.4%)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6.0% 상승하였으나, 우유 가격은 1.8%로 소폭 하락하였다<그림 8 참조>.

2015년 남아공 농업 총생산(Gross Value)은 약 2,332억 란드(약 170억 달러)로 전년대비 약 5.5% 상승하였다. 축산업, 원예업, 농작업은 각각 48.8%, 27.4%, 23.8%를 기록하며 이러한 상승세에 기여하였다. 품목별로는 가금류 생산이 16.6%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목축 및 가축사육과 옥수수 생산이 각각 12.1%, 10.5%로 뒤를 이었다 <그림 9 참조>.

그림 9 남아공 농업 총생산(2011-2015, 1-12월)

단위: 백만 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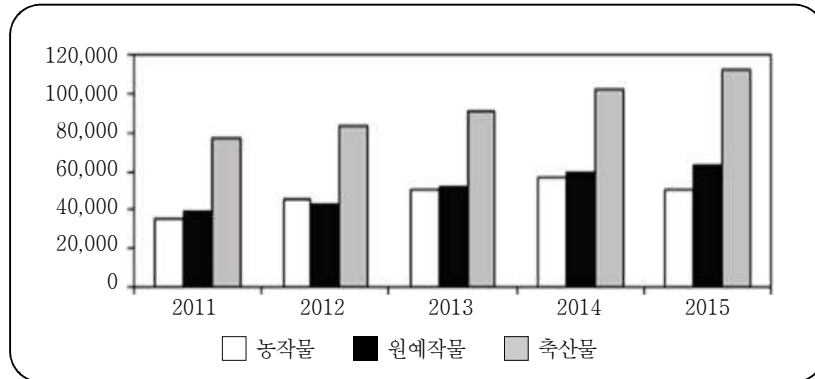
자료: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2015).

2015년 농가 총소득(Gross Income)은 전년대비 4.1% 증가한 약 2,267억 란드(약 16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분명한 증가세이지만, 지난 4년간의 농가 총소득이 10% 이상의 성장세를 꾸준히 기록해온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그 성장세가 주춤했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생산의 감소를 들 수 있다. 실제로 전년대비 2015년 농작물 농가 소득은 옥수수(-13.9%), 사탕수수(-11.8%) 등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이러한 작물 생산 감소세는 낙엽성 과일, 채소 등의 원예작물과 육우, 양고기, 계란, 우유 등의 축산물 생산량 증가로 인해 어느 정도의 상쇄효과를 보였다<그림 10, 11 참조>. 한편, 고정자산, 자본 구입비 등의 제반 비용을 제외한 농가 순 소득(Net Farm Income, NFI)은 전년대비 3.1% 감소한 734억 란드를 기록하였다.

그림 10 남아공 농가 총소득(2011-2015, 1-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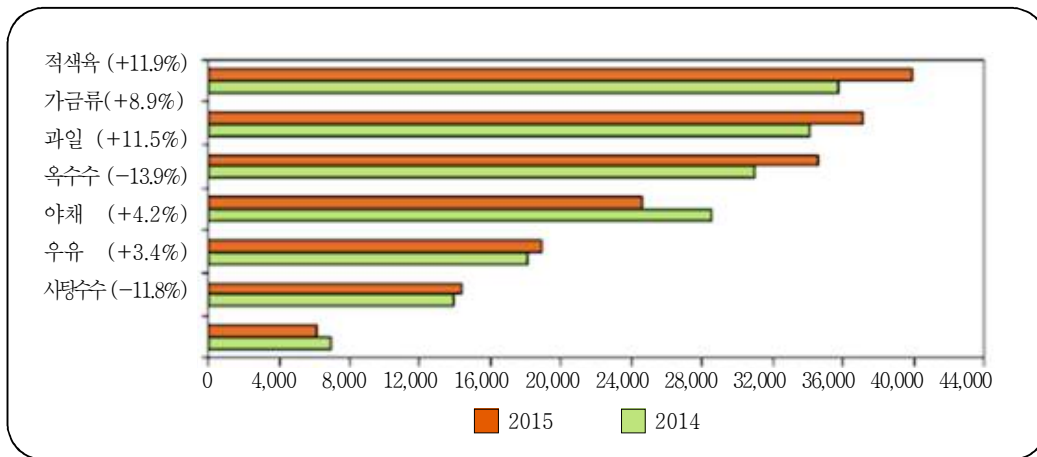
단위: 백만 란드



자료: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2015).

그림 11 주요 농작물별 총소득(2014년 대비 2015년 수치, 1-12월)

단위: 백만 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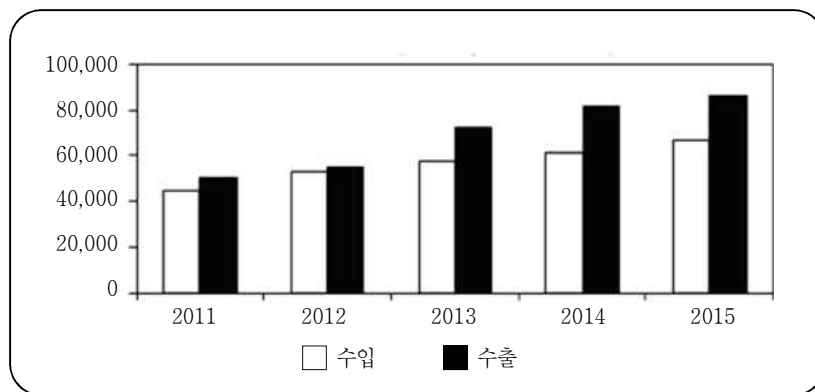


자료: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2015).

2015년 농업 관련 수입액은 전년대비 약 10.2% 상승한 672억 란드를 기록하였으며, 수출액은 6% 상승하여 813억 란드를 기록하였다<그림 10 참조>. 2015년 농업부문 주요 수출품으로는 감귤(138억 란드), 와인(83억 란드), 포도(74억 란드), 사과, 배, 모과(66억 란드), 견과류(39억 란드) 등을 들 수 있으며, 주요 수입품으로는 밀과 메슬린(Meslin)(60억 란드), 쌀(55억 란드), 가금류(46억 란드), 비변성 에틸알코올(Undenatured Ethyl Alcohol)(37억 란드), 팜유(37억 란드)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12 농업부문 수입 및 수출액(2011-2015, 1-12월)

단위: 백만 란드



자료: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2015).

전체 합산금액 기준 2015년 농업분야 주요 수출국으로는 네덜란드(92억 란드), 영국(85억 란드), 모잠비크(60억 란드), 짐바브웨(51억 란드), 중국(46억 란드)를 들 수 있으며, 주요 수입국으로는 아르헨티나(59억 란드), 브라질(46억 란드), 영국(38억 란드), 태국(35억 란드), 네덜란드(33억 란드)를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농업관련 중간재(가축사료 구입비용, 유지보수비용, 가축 관리비용)를 위한 지출액은 전년대비 7% 상승한 1,244억 란드를 기록하였으며, 토지 개선, 농기계 구입, 가축 재고 등 농업 자본에 대한 투자액 또한 전년대비 8% 증가한 3,931억 란드를 기록하였다. 또한 총 농가 부채는 전년대비 14.2% 늘어나 1,330억 란드를 기록하였으며, 자금유동성 또한 전년대비 0.7% 감소한 767억 란드로 측정되었다. 이는 작물 생산에 대한 농가의 투자금액 및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농가소득감소로 전년대비 농가 자금운용능력이 비교적 하락하였음을 시사한다.

3.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농업정책

남아공 정부는 2012년 빈곤타파 및 불평등 해소를 큰 기조로 한 국가발전계획 2030(National Development Plan 2030: Our future - make it work)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국가 장기발전계획을 공표하였다. 가장 큰 목표는 한 달 소득 419란드 이하로 생활하는 가정의 비율을 39% 수준에서 0%로 하락시키는 것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현재 수준인 0.69에서 0.6으로 하락시키는 것이다. 농업분야의 발전은 해당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직접적으로는 국가 경제발전, 빈곤해소 및 지역개발 관련 목표와 관련이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개발 등의 이슈와도 연관되어 있다. 하부 목표 중 농업분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목표와 핵심 실천 방안을 발췌하여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국가발전계획 중 농업분야 유관 내용

해당 분야	세부 목표	실천 방안
경제 및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률 감소(2012년 24.9%→2020년 14%→2030년 6%) - 1,100만 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성인 고용률 제고 (29%→40%) - 농촌지역 성인 고용률 제고(29%→40%) - 노동참여율 제고(54%→65%) - GDP 2.7배 성장. 연간 GDP 평균 성장률 5.4% 달성 - 1인당 GDP 향상(2010년 5만 란드→2030년 11만 란드) - 하위 40%의 소득수준 향상 (6%→10%) - 사회 취약층 자산 소유권 강화 - 수출량 6% 향상 - GDP 대비 국가 저축 비율 향상(16%→25%) 등 - 총 고정자본 향상(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생활비 및 영세기업의 사업비용 감소 - 최소생활수준 제시 및 개선방안 마련 - 성장, 투자, 일자리 마련의 저해요소 제거 등
경제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에 깨끗하고 충분한 농업 및 산업 용수 공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자원 개발, 용수 대량공급, 폐수 관리 등을 위한 통합관리전략 마련 및 5년 주기 모니터링 - Lesotho Highlands 수자원 프로젝트 2단계 완료(2020) -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국가 수자원 보존 프로그램 등 새로운 계획 설계 - 지역별 수자원 및 폐수 공공시설 설치 및 기존 수자원 위원회 의무 사항 강화(2012-2017) 등
지속가능성 및 환경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자원 활용에 대한 지표 설정 및 연간보고서 발행 - 토양 및 해양 보호구역 확장 - 2025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노력 동참 - 재난 방지책 마련 - 농촌사회 보호와 상업농 확대를 위한 농업 신기술 및 적정기술 개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 보호를 위한 표준 토지 활용 프레임워크 설정 -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탄소배출권 도입 - 소규모 농가 및 상업농을 위한 농업 신기술 및 적정기술 개발 부문 공공투자 확대 등

(계속)

해당 분야	세부 목표	실천 방안
포괄적 농촌경제발전	- 농업, 농가공업 및 유관분야에 643,000개의 직접 고용, 326,000개의 간접 고용 증가 - 일차 및 가공 농산품의 흑자 유지 등	- 인프라 및 서비스 증진(토지 소유권 문제 검토, 소규모농가 지원 등) - 관개 인프라시설 증대 - 여성 상업농의 토지 소유권 보장(금융 접근성, 토지개혁 관련 사적 재산권 보장 등)
사회적 보호	- 빈곤, 기아, 영양부족 등의 문제 접근 - 취약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마련 등	- 포괄적인 식량 안보 및 영양 전략 마련 및 홍보 등
안전한 사회공동체 마련	- 국민들이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공제도 및 사회 분위기 형성	- 사회 취약층의 안전 보장을 위한 범죄 청산 - 국가농촌안전전략계획 마련 등

자료: National Planning Commission(2012).

이러한 국가발전계획 아래, 남아공 정부는 통합적인 농업 지원 프로그램 시행을 통한 소규모 농가 지원 및 식량 생산 증대와 농지 품질관리, 자연재해 구호금 등에 정책방향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례로 남아공 정부는 농업에 특화된 토지농업은행(Land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Bank of South Africa)을 운영하여 전체 농가 금융 조달의 약 30%를 책임지고 있다.³⁾ 본 토지농업은행은 2014년 기준 국가 GDP에 482억 란드를 기여하고 기존 일자리 3만 7,000개와 더불어 2만 3,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한 남아공 정부는 소규모 농가를 위한 소농금융기구(Micro-Agricultural Financial Institutions of South Africa, Mafisa)를 운영, 8%대의 금리로 인당 50만 란드까지 대출 가능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본 기구에서는 2만 5,000란드까지 담보 없이 대출 가능하며, 대부분의 대출금이 가축, 농작물 등으로 상환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규모 농가들의 접근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홍수, 가뭄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s)를 도입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 재해 위기관리계획(Agricultural Disaster Risk-management Plan) 및 농업 가뭄관리계획(Agricultural Drought-Management Plan)등의 정책문서를 발표하여 기후변화 및 재해관리를 위한 국가 단위의 방향성 및 계획 수립에 힘쓰고 있다.

4. 맺음말

남아공은 현재 불안한 치안상황과 물 부족 및 토양오염 등 다양한 위협요소로 농업 발전 및 국가 전체의 경제사회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다양한

3) 농가 주요 금융 조달원은 은행(56%), 토지농업은행(30%), 농업조합 및 농기업(9%), 민간(3%), 기타금융기관(2%) 순임.

지역 및 기후 조건으로 생산 가능한 농산품의 범위가 넓고, 현재 농업 총생산, 농가 총소득, 농산품 수출액 등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농가소득 및 농업생산량이 다소 주춤한 기세를 보이고 있지만, 농가의 농업 투자비용 및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농업 총생산과 농가 총소득이 아직까지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개선 가능성을 기대해 볼 만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농업소득의 부진을 극복할만한 농외소득원의 개발 및 낙후된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사회 불균형 해소가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남아공 정부에서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 및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주어진 기회와 잠재력을 잘 활용한다면 남아공은 향후 국가 농업의 내실 있는 발전을 통해 아프리카 경제 핵심국가로 더욱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Jegar, D. Elsa. 2016. *SA rainfall in 2015 the lowest on record*. SAWS. (<http://www.politicsweb.co.za/>)
- Goldblatt, Amy. 2010. Agriculture: Facts & Trends, South Africa. World Wildlife Forum.
-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2016. Abstract of Agricultural Statistics 2016.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2015. Economic Review of the South African Agriculture.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 National Planning Commission. 2012. National Development Plan 2030: Our future - make it work. Presidency of South Africa, Pretoria, 1.

참고사이트

- 구글 지도(<https://www.google.com/maps/>)
-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웹사이트(<http://www.gov.za/about-sa/agriculture>)
- 남아프리카공화국 농림수산부 웹사이트 (<http://www.daff.gov.za>).
-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Climate_of_South_Africa)
- 2008/09년 남아공 연감 (<http://www.gcis.gov.za/content/resourcecentre/sa-info/yearbook2008-09>)
- FAO Corporate Document Repository (<http://www.fao.org/docrep/008/y5998e/y5998e06.htm>)
- FAO 통계 웹사이트(<http://faostat3.fao.org/>)
-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news.kotra.or.kr/>)
- Southafrica Info 웹사이트 (<http://www.southafrica.info/>)